ELIO’S LITTLE DISCOVERIES

What Should We Build?

무엇을 지을까? · 결정의 이유



11세 · Day 039 · 함께 읽기 · 4장면



They laid pebbles where each thing would go. The bench took two of Bori’s steps, the raised bed took three, and the stage needed four.



“Nine of my steps,” said Bori, counting on her wing tips. “Two and three and four make nine. That leaves nothing at all for the path.”



So they dropped the stage and the sandbox. The bench went under the oak, the raised bed went in the sun, and four flat stones went into the path.



The bench had a wide flat seat. That evening Bori placed her three puppets on it, and Elio set the last path stone into the mud.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빈터와 돌 표시를 봐요. 우리 동네에 작은 놀이터를 만든다면 무엇을 두고 싶은지 물어봐요.

함께 읽을 때

엘리오의 여섯 걸음과 보리의 아홉 걸음이 왜 다른지 그림에서 확인해요.

생각 나누기

무대를 포기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보리와 엘리오가 마지막에 무엇을 얻었는지 찾아봐요.

생활에서

집 안의 작은 공간을 걸음으로 재어 보고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지 그려 봐요. 자로 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